한국 여성시의 탈식민주의 페미니즘 연구

: 고정희, 김승희, 허수경의 시를 중심으로

이혜원 *

차례

1. 서론
2. 고정희 - 식민지 여성 수난사의 탐구와 해방의 노래
3. 김승희 - 제국주의적 일상의 각성과 여성의식의 교차 서술
4. 허수경 - 폭력의 역사와 여성 차별의 서사적 재현
5. 결론

〈국문초록〉

탈식민주의 페미니즘은 식민지배와 가부장제에 대해 타자로서의 여성이 갖는 예리한 현실인식을 살필 수 있는 이론이다. 본고에서는 고정희, 김승희, 허수경의 시를 통해 탈식민주의 페미니즘의 다양한 의미와 시적 가능성을 탐색한다.

고정희는 폭력적 역사의 희생자이면서도 그러한 역사를 극복하는 주체라 할 수 있는 한국 여성 특유의 역사성을 강조한다. 또한 이를 표현하기 위해 전통적인 시가 형식을 도입하는 등 한국 여성시의 탈식민주의 페미니즘을 적극적으로 개척해간 선구자이다.

김승희는 평범한 일상에 편재해 있는 제국주의와 여성 차별의 그늘을 예리하게 포착하고 비판적으로 분석해낸다. 일상의 순간들과 역사적 사실, 개인의 삶과 집단의 기억을 병치하는 특유의 교차 서술로 여성들 간의 자매애와 연대감을 역동적으로 표출한다.

허수경은 심각하게 훼손되고 식민화된 여성들의 신체를 통해 전쟁과

* 고려대학교 문화스포츠대학 문화창의학부 미디어문예창작전공 교수

같은 폭력적인 역사 속에서 지속되어온 여성 차별을 재현한다. 허수경의 시는 여성 수난사의 뿌리가 깊고 앞으로도 쉽게 나아지기 힘들다는 부정적인 전망을 우화의 선명한 구조로 보여준다.

이들은 여성문제에 작용하는 역사적 상황을 심도 있게 탐구하는 과정에서 성적 차별의 역사를 입체적으로 파악하는 데 긴요한 준거를 마련하고, 한국 여성시의 탈식민주의 페미니즘을 대표할 만한 독자적인 시선과 미학을 형성한다.

핵심어 : 한국 여성시, 탈식민주의 페미니즘, 고정희, 김승희, 허수경, 식민지, 제국주의, 자매애, 여성 차별

1. 서론

한국의 여성시는 1980년대 이후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어 왔다. 여성 시인들이 수적으로 크게 증가했을 뿐 아니라 새로운 문제의식과 표현 양식을 선보이며 주도적으로 활동해왔다. '여성적' 시를 쓰던 이전의 여성 시인들과 달리 여성에게 가해지는 부당한 차별에 저항하는 '여성주의적' 시들이 등장하면서 여성시의 위상은 크게 달라졌다. 그간의 남성 중심의 시단에서 '여류'로 치부되던 약세를 벗어나 당당하게 여성으로서의 목소리와 주장을 펼칠 수 있게 되었다. 1980년대 민주화의 요구와 함께 강해지기 시작한 '여성주의적' 여성시의 약진으로 한국 여성시의 위상은 전에 없이 강화된다. 그리하여 1990년대 이후에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한국 시에서 중심적 역할을 해나가고 있다. 한국 여성시는 이러한 급성장을 통해 서구 선진국에서 여성문학이 겪는 세 단계 — 남성중심의 사회문화적 규범에 충실한 '여성적' 문학(Feminine Literature), 기존의 규범을 의심하고 부정하면서 여성 자신의 시각을 정립하려는 '여성주의적' 문학(Feminist Literature), 기존 문화와의 대결에 에너지를 빼앗기지 않고

자신의 안에서 여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추구하는 '여성의' 문학(Female Literature)[1] ── 를 압축적으로 통과하여 단기간에 '여성의' 문학 단계에 진입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하여 이제 한국 여성시는 여성으로서의 자의식을 자연스럽게 표출하며 다양한 시적 실험을 행하고 있다.

탈식민주의 페미니즘은 '여성의' 문학 단계에 가까운 현 상태에서 볼 때 다소 과거형의 과격한 이론으로 비칠 수도 있다. 한국 여성시는 역사적으로 식민지시기를 지나왔을 뿐 아니라 여성문학의 '여성주의적' 단계도 넘어선 것으로 진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좀 더 시선을 넓혀, 탈식민화란 "모든 형태의 식민주의자의 권력을 드러내고 해체하는 과정"이며 독립을 쟁취한 이후에도 여전히 남아 있는 종주국의 제도적·문화적 힘과 잔재를 청산하는 것을 포함한 일련의 과정[2]이라고 볼 때 우리나라 또한 예외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식민지시대의 잔재와 새로운 억압의 양상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을 뿐 아니라 더욱 복잡한 양태로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성 차별의 문제 또한 그동안 많이 개선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잔존하고 있다. 탈식민주의 페미니즘은 제국과 식민지, 남성과 여성이라는 대표적인 억압과 차별의 구조를 이중적으로 내포하고 있는 식민지 여성의 문제를 쟁점으로 하는 이론으로, 억압된 '타자들'의 현실을 가장 첨예하게 반영한다. 식민지 여성은 제국주의와 남성중심적인 지배 질서에 희생되어온 약자 중의 약자로서 차별적 지배구조가 개인에게 가하는 부당한 억압을 함축하는 존재이다. "제3세계의 신식민주의 문제를 해결하려고는 하지만 남성 중심적이고 우월적인 탈식민 담론과 여성에게 고유한 문제를 다루지만 제국주의적인 제1세계 페미니즘 담론 사이에서 어느 쪽도 선택할 수 없는 제3세계 페미니스트들은 가부장제와 식민주의의 이중 억압이라는 제3세계 여성의 딜레마에서 벗어나려고 시도하면서 자신들의 입장을 이론화시키고 실천하려는 노력을 해

1) Elaine Showalter, "The Female Tradition", *A literature of Their Own,* Princeton, New Jersey: Princeton Univ. Press, 1977, pp.19~36.
2) 박종성, 『탈식민주의에 대한 성찰』, 살림, 2006, 45쪽.

왔다."[3] 식민지를 경험한 제3세계 여성이 겪는 현실은 제1세계 여성들의 삶과 다르다. 제1세계 페미니즘 담론과 다른 탈식민주의 페미니즘이 요청되는 것은 이 때문이다. 그것은 남녀의 평등을 추구하는 페미니즘의 근본 이념을 공유할 뿐 아니라 하나의 인격에 작용하는 민족, 계급, 인종 등 모든 불평등한 관계를 탐구하려 한다. 억압과 차별에 대한 자각과 저항을 목적으로 하는 문학에서 탈식민주의 페미니즘의 역할은 작지 않다.

그동안 탈식민주의 페미니즘은 "페미니즘의 탈식민화와 탈식민주의의 페미니즘화라는 이중적 과제를 수행"[4]하면서 다양한 미학과 대안들을 창출해왔다. 남녀평등을 주창하는 페미니즘이 주로 제1세계 여성들을 통해 발언된 것으로 식민지 여성들의 입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성찰과 함께 그녀들의 침묵에 내재하는 목소리를 되돌려주려는 움직임이 생겨난다.[5] 또한 탈식민주의 페미니즘은 탈식민주의 이론에서도 여전히 소외되고 차별 받는 여성의 처지를 각성시킨다. "탈식민주의 페미니스트는 민족주의가 제국주의나 식민주의에 대응하면서 역설적으로 자민족 여성들의 섹슈얼리티를 민족의 상징으로 전유하거나 통제의 대상으로 두는 방식에 비판적인 관점을 유지한다."[6] 이처럼 탈식민주의 페미니즘은 식민지적 현실과 성적 차별이 중층적으로 작용하는 난경 속에서 여성이 주체로서 자기 목소리를 찾고 비판적 현실 인식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한다.

한국 여성시인에게 일제의 식민지배와 분단 이후 복잡한 국제 관계 속에 전개되어온 역사적 특수성과 가부장제의 오랜 전통은 탈식민주의 페미니즘에 익숙한 환경으로 작용한다. "가부장제와 제국주의 사이에서, 주

3) 박경화, 「탈식민주의와 페미니즘」, 『탈식민주의 이론과 쟁점』, 고부응 외 공저, 문학과지성사, 2003, 168-169쪽.
4) 태혜숙, 『탈식민주의 페미니즘』, 여이연, 2001, 46쪽.
5) '(여성으로서) 서발턴은 말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들과 마주하며 서발턴에게 역사 속의 목소리를 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는 스피박의 주장이 대표적이다. 가야트리 차크라보르티 스피박 외, 『서발턴은 말할 수 있는가?』, 태혜숙 역, 그린비, 2013, 100쪽.
6) 이나영, 「초/국적 페미니즘-탈식민주의 페미니스트 정치학의 확장」, 『경제와사회』 제70호, 비판사회학회, 2006, 72쪽.

체-구성과 대상-형성 사이에서 여성의 형상은 본래의 무(無)가 아니라 폭력적인 왕복 운동 속으로, 전통과 근대화, 문화주의와 발전 사이에 사로잡힌 '제3세계 여성'의 전위된 형상화 속으로 사라지고 만다. 이런 고찰들은 서구 섹슈얼리티의 역사에서나 타당해 보이는 판단들의 세부 사항을 모두 수정하게 만들 것이다."[7]라는 스피박의 주장은 서구의 역사와 다른 식민지의 역사를 겪은 한국 여성시의 독특한 문제의식을 이해하는 데 참조할 만하다. 식민지배를 경험한 제3세계의 여성으로서 한국 여성시인들은 서구의 섹슈얼리티와 다르게 이중으로 소외된 주변부의 타자로서 예리한 자의식을 확보하게 된다. 탈식민주의 페미니즘을 내포하고 있는 여성시는 '여성주의적' 단계의 강력한 여성적 자의식을 유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식민지적 상황에 대한 자각과 극복의 방안에 있어서도 대립과 갈등을 넘어서 여성 특유의 연대의 가능성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식민지 체험이 있는 한국 여성 시인들의 탈식민주의 페미니즘은 사유의 폭이 넓고 깊다. 유사한 역사를 겪어온 식민지 여성들에 대한 관심이 남다르고 공감과 연대의식이 뛰어나다. 한국 여성시인들은 자국의 식민 체험과 여성차별에 대한 저항을 연장하여 세계적 차원으로 탈식민주의 페미니즘의 가능성을 확대한다. 해외에 진출하여 타국 사람들과 활발하게 교류하면서 국제관계와 여성문제에 대한 관심이 더욱 깊어지는 예들이 많다. 주변부 여성으로서의 타자의식으로 인해 역으로 더욱 다양한 여성문제를 공유하며 절실한 반응을 드러낸다. 한국 여성시인들의 탈식민주의 페미니즘은 첨예한 현실인식의 산물로서 여성적 글쓰기의 가능성을 다양하게 실현해 보인다.

본고에서는 한국의 탈식민주의 페미니즘을 대표하는 고정희, 김승희, 허수경의 시를 중심으로 탈식민주의 페미니즘과 관련된 이들의 시의식과 언술의 특징을 검토해볼 것이다. 그동안 여성시인들에 대한 페미니즘적 연구는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져 온 것에 비해 탈식민주의 페미니즘으로

7) 가야트리 차크라보르티 스피박 외, 앞의 책, 129-130쪽.

접근한 경우는 드물다.[8] 탈식민주의적인 시각을 드러내는 여성시인들이 그리 많지 않고 그런 시인들이더라도 조금씩 다른 시기에 활동했기 때문에 일관된 기준으로 언급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고정희, 김승희, 허수경은 1980년대 활발하게 활동하며 현실의 문학적 재현 가능성을 탐색했으며 한국 여성시의 '여성주의적' 단계를 몸소 통과하는 과정에서 여성이 처한 부정적인 현실을 각성시키는 데 일조했다. 이들은 여성에게 가해지는 부당한 차별의 근저에서 남녀 차별 이상으로 국가적, 민족적 차별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그 실상에 접근해간다. 이들의 시에서 탈식민주의 페미니즘의 경향이 나타나는 시기는 조금씩 다르지만, 이와 관련된 이 세 시인의 문제의식은 일시적이지 않고 지속적이며 저마다 분명한 개성을 확보하고 있어 주목을 요한다. 또한 이들은 여성의 사회적 처지와 역할에 대한 관심을 우리나라뿐 아니라 다른 나라 여성들에게까지 확산시켜 거시적인 시선을 드러낸다. 외국의 여성들을 만나거나 목격할 수 있었던 경험으로 이들은 더욱 광폭의 탈식민주의 페미니즘을 실행할 수 있게 된다.

본고에서는 고정희, 김승희, 허수경 시인의 탈식민주의 페미니즘을 살

8) 탈식민주의 페미니즘의 관점으로 한국 여성시인을 조명한 선행 연구는 다음과 같다.
김승희, 「한국 현대 여성시에 나타난 제국주의적 남근(Phallus) 읽기」, 『여성문학연구』 제7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02, 80-104쪽. 이 논문에서는 한국 현대 여성시에서 제국주의와 민족주의, 가부장제적 자본주의가 어떻게 한국 여성의 수난을 구성해왔는지를 고정희와 김승희의 시를 통해 살피고 있다. 한국 여성의 수난이 제국주의적 침탈뿐 아니라 한국 내의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와 전통적 성별의식, 전지구적 자본제와 민족주의 담론 안에서 함께 고찰되어야 할 사항이라는 문제의식은 탈식민주의 페미니즘의 핵심적 사안을 함축하고 있다.
정영주, 「고정희 시의 탈식민주의 페미니즘에 관한 고찰-『모든 사라지는 것들은 뒤에 여백을 남긴다』를 중심으로」, 『한국문예창작』 제9호, 한국문예창작학회, 2006, 39-67쪽. 이 논문은 고정희 시집 『모든 사라지는 것들은 뒤에 여백을 남긴다』에 나타나는 탈식민주의 페미니즘의 양상을 살피고 있다. 자본의 식민통치에 대한 풍자와 폭로의 방식으로 되받아 쓰기와 패러디의 양식이 활용되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한 점이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고정희 시의 탈식민주의 페미니즘을 후기시에 한정시킨 점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 고정희 시에서 탈식민주의 페미니즘은 초기시에서부터 일관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펴볼 수 있는 시들을 대상으로 각각의 특징적인 의식과 표현의 방법을 고찰하려 한다. 지금까지 한국 여성시인들에 대한 탈식민주의 페미니즘 연구에서는 고정희 시인을 주로 다루었고 김승희 시인을 부분적으로 언급하는 정도였는데, 이러한 논의를 좀 더 확대하여 관련되는 여러 시인들의 다양한 시선과 표현방식을 비교할 필요가 있다. 탈식민주의 페미니즘 연구에서 문제의식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그것이 어떤 시선으로, 어떻게 표현되느냐 하는 것이다. 세 시인이 드러내는 다양한 면모들을 살피는 동시에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를 찾을 수 있다면 탈식민주의 페미니즘의 시대적 의미와 시적 가능성을 엿볼 수 있으리라 본다.

2. 고정희 - 식민지 여성 수난사의 탐구와 해방의 노래

고정희는 1975년에 등단하여 1979년 첫 시집 『누가 홀로 술틀을 밟고 있는가』를 간행한다. 탈식민주의 페미니즘과 관련하여 고정희의 문제의식이 본격화되는 것은 1983년 세 번째 시집 『초혼제』를 간행한 이후이다. 『이 시대의 아벨』(1983), 『눈물꽃』(1986), 『지리산의 봄』(1987), 『저 무덤 위에 푸른 잔디』(1989), 『모든 사라지는 것들은 뒤에 여백을 남긴다』(1992) 등 그 후에 간행된 거의 모든 시집에서 많게나 적게 탈식민주의 페미니즘과 관련된 시들을 살필 수 있다. 고정희는 1980년대 고조된 문학의 사회 참여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탐색했으며, 특히 여성에게 가해지는 부당한 차별에 저항하게 된다. 여성 차별과 관련된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행하는 과정에서 그 역사적 뿌리를 탐구하게 되고, 그것이 오랜 식민지 상태의 역사와 관련된다는 인식에 도달한다. 탈식민주의 페미니즘과 관련된 고정희의 인식은 매우 선구적이고 지속적이다. 1990년 8월부터 1년간 '탈식민지 시와 음악 워크샵'에 참여하면서 그녀의 탈식민주의적 의식은 더욱 고취된다. 『초혼제』 이후 1991년 작고할 때까지 고정희는 탈식민주의 페미니즘의 선봉에서 적극적인 탐구와 실천으로 물꼬를 트는 역할

을 한다. 고정희의 탈식민주의 페미니즘은 역사 탐구와 함께 진행되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벌어진 여성 억압의 상징적 사례들을 재현하는 기록과 같은 역할을 한다.

우리나라의 식민지 시기는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 통치되었던 36년간이다. 식민지 이후 정치적으로는 독립을 이루었다 해도 경제적, 문화적으로 식민 상태를 벗어나지 못한 상태를 재식민화로 파악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일제의 직접 통치를 받았던 시기를 식민지 시대라 한다. 그런데 고정희 시에서 우리 역사는 일제 강점기뿐 아니라 그 이전의 오랜 세월과 그 이후 시대까지 식민지 상태로 파악된다. "이천 년도 더 짓밟히신 어머니/(…)/다국적 사창가 전전하면서/육천 마디마다 쇠바늘 꽂아놓고/긴긴 날궂이 버티신 지난 날"(「프라하의 봄 · 6-12代를 哭함」)[9]에서와 같이 '어머니'로 상징되는 조국은 이천 년 전부터 타국의 억압에 유린당해 왔으며 지금까지도 "다국적 사창가"와 같은 혼탁한 국제관계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본다. 여성 수난의 역사를 되돌아 볼 때 이러한 현실인식은 마냥 과장된 것만은 아니다.

20년 동안 무심히 까발려진 한강에서
사내들은 모래에 삽질을 하고
사대문 안에서는
허울좋은 보도들이
시골 풍년잔치와 놀아나는 시월,
어인 일인가
조선국 충렬왕조에 공출나갔던
고려 여자들이 돌아오네
앞산 뒷산 풀섶에
흰 들국향으로 돌아오네

9) 고정희, 『눈물꽃』, 실천문학사, 1986, 69쪽.

다리 후들거리며 떠나갔던 여자들,
회회아비와 살을 섞고
청국인과 피를 섞고
오랑캐와 넋을 섞어
조선국 사대부 밥줄 지킨 여자들10)

'현대사연구'라고 제목을 붙인 이 시에서는 현대사에 이르기까지 유구하게 이어진 여성 수난사를 그려낸다. 이 시의 첫 장면은 건설의 열기와 경제 발전의 자부심이 넘치는 사회의 분위기를 보여준다. 무수한 역사적 시간을 담은 채 흘러가는 한강은 경제 개발과 발전의 상징이 된다. 그러한 변화를 주도하는 것은 '사내들'이고, 경향(京鄕) 모두 축제 분위기다. 그런데 풍넌가가 넘치는 이 풍요로운 가을 풍경 속으로 뜻밖의 장면이 끼어든다. "조선국 충렬왕조에 공출나갔던/고려 여자들이 돌아"오는 것이다. 현대의 시간 위로 수백 년 전의 시간이 급작스럽게 흘러 들어온다. 현재의 "허울좋은 보도들"이 감추고 있는 조국의 치부가 낱낱이 드러난다. "조선국 사대부 밥줄"을 지키기 위해 머나먼 이국땅으로 끌려가 유린당한 여자들의 기구한 운명이 적나라하게 펼쳐진다. "으드드득 주저앉은 무릎뼈 흔들며/들국 산국 향으로 돌아"온 여자들의 가련한 사연이 나열된다. 약소국의 비극을 온몸으로 감당해야 했던 여자들의 이야기는 이 정도로 끝나지 않는다. "일제치하 끌려갔던 정신대 여자들", "해동천 공화국에 사는 여자들"로 이어지는 이 땅의 여성사는 식민지 조국의 제물로 바쳐진 여성들의 기구한 사연으로 구성된다. 고정희는 우리가 겪은 식민지 여성의 수난사가 일제 강점기에 국한되지 않고 위로는 중국에 공출됐던 고려 여성들로부터 다국적 기업의 달러벌이에 동원되는 현대 한국 여성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지속되었다는 어두운 역사적 진실에 주목한다.

고정희가 '현대사 연구'와 '여성사 연구'라는 부제 하에 심층적으로 탐

10) 고정희, 「현대사연구 · 14-가을 하늘에 푸르게 푸르게 흘러가는 조선 여자들이여」, 위의 책, 136쪽.

구한 우리 여성사는 외세의 압박 속에 여성의 희생이 강요되었던 고난의 역사이다. “오 한반도 어머니,/오 인류 생명 어머니,/덜 폭력적인 것이/더 폭력적인 것과 만나면/더 폭력적인 것의 밥이 되고/덜 탐욕적인 것이/더 탐욕적인 것과 만나면/더 탐욕적인 것의 밥이 되고/더 선한 것이/덜 선한 것과 만나면/덜 선한 것의 밥이 되는 우리 역사”11)로 압축되는 우리의 역사는 강대국의 탐욕과 폭력에 희생돼 왔으며 그 폐해는 여성들에게 극심하게 나타난다. “한반도 어머니”라는 표현에서 드러나듯 고정희는 역사의 주체를 여성으로 파악하고 “인류 생명”의 근간이 되는 여성이 부당하게 희생되는 역사의 폭력성을 각성시킨다. 이러한 역사 인식은 남성 중심의 기존 역사를 여성의 시각으로 재구성한 것으로 역사에 대한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을 열어놓는다.

폭력적 역사에 희생되어온 우리 여성사에 대한 인식은 나아가 비슷한 처지에 놓인 식민지 여성들에 대한 동류의식으로 발전된다. “달처럼 온순한 그대/순한 양의 그대가/바보보다 성실하게 친절하게/가난의 역사 억압의 역사/너무 슬퍼서 슬픈지조차 모르는 역사를 가냘픈 등짝에 지고/주님, 주님, 부르며 걸어갈 때/까닭 모를 눈물이 내 두 눈을 적시네”12)에서처럼 가난과 억압의 역사를 공유하는 모든 식민지 여성들을 바라보는 그녀의 눈길은 비애와 연민으로 가득하다. 자본주의의 횡포가 만연한 새로운 제국주의의 지배 속에서 식민지의 여성들은 값싼 노동이나 몸을 팔며 희생되는 현실을 외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폭력적인 제국과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이중의 희생을 겪는다는 점에서 식민지 여성들과의 연대감은 각별하다. 고정희는 1990년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아시아 종교음악 연구소 초청으로 아시아의 시인 및 작곡가들이 모여 1년간 벌인 ‘탈식민지 시와 음악 워크샵’에 참여했으며 이 때 「밥과 자본주의」, 「외경읽기」

11) 고정희, 「분단동이 눈물은 세계 인민의 눈물이라」, 『저 무덤 위에 푸른 잔디』, 창작과비평사, 1989, 128-129쪽.
12) 고정희, 「밥과 자본주의-하녀 유니폼을 입은 자매에게」, 『모든 사라지는 것들은 뒤에 여백을 남긴다』, 창작과비평사, 1992, 19쪽.

연작시를 쓴다.[13] 고정희의 탈식민주의 페미니즘이 한국적 상황에 국한되지 않고 아시아적인 연대의식으로 확산된 데는 이러한 체험이 작용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식민지를 겪었을 뿐 아니라 다국적 기업을 앞세운 새로운 자본주의의 지배하에 놓인 많은 아시아 국가들에서 여성들이 처한 비참한 현실에 공분하면서 고정희의 탈식민주의 페미니즘은 대폭 확장된다.

고정희는 가난과 억압으로 점철된 역사를 폭넓게 탐구하면서 여성들이 겪은 갖가지 수난을 파헤치게 되었을 뿐 아니라 여성들의 빛나는 구국운동을 조명하기도 한다. "근자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국채 일천삼백만 원에 나라의 흥망이 달려 있다 하오니/대범 이천만 중 여자가 일천만이요/여자 일천만 중 반지 있는 이가 오백만이라/반지 한 쌍에 이 원씩 셈하여/부인 수중에 일천만 원 들어 있다 할 것이외다/기우는 나라의 빚을 갚고 보면/풍전등화 같은 국권회복 물론이요/여권의 재앙 말끔히 거둬내고/우리 여자의 힘 세상에 전파하여/남녀동등권을 찾을 것이니/대한의 여성들이여,/반만년 기다려온 이 자유의 행진에/삼종지덕의 가락지 벗어 던져/새로운 세상의 징검다리 괴시라"[14]에서는 여성들이 주도했던 구한말 국채보상운동인 '반지뽑기부인회' 활동을 다루고 있다. 시인은 이 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되살리기 위해 최초의 여성 참여지였던 대구 지방 「탈환회 취지서」 원문을 전용하는 방식으로 이 시를 쓴다. 취지서에 분명하게 드러나듯 국채보상운동에 참여한 여성들은 '국권회복'과 '남녀동등권'이 함께 추구해야 할 "자유의 행진"이라는 사실을 뚜렷하게 인지하고 있다. 외세나 구습에 종속되지 않고 여성이 주체로서 바로 서기 위해서는 여성의 힘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각성된 의식이 두드러진다.

시인은 이처럼 잘 알려져 있는 여성운동을 사실적으로 재현할 뿐 아니라 별로 알려져 않았던 여성 독립운동가들을 새롭게 조명하는 데도 일조

13) 위의 책, 200쪽.
14) 고정희, 「반지뽑기부인회 취지문-여성사 연구 2」, 『지리산의 봄』, 문학과지성사, 1987, 79-80쪽.

한다. 「남자현의 무명지-여성사 연구 3」의 주인공이 대표적인 예이다. 남자현은 경북 안동 출신의 여성으로 서로군정 독립단으로 활약하다 왜경에 체포되어 옥중에서 별세했다고 한다. "안동땅에 자자한/효부 열녀 쇠사슬에 찬물을 끼얹고/여필종부 오랏줄을 싹둑 끊으니/서로군정 독립단 일원이 되니라"15)는 진술로 알 수 있듯 가부장제의 전통이 유난히 강한 안동 출신으로 뿌리 깊은 유교 사상을 떨치고 독립운동을 펼쳤다는 점에서 더 남다른 인물이다.

고정희의 시에서는 "반지 뽑아 국채보상"을 하고 "약지 잘라 혈서 쓰던 독립군"과 같이 적극적으로 독립운동에 참여했던 여성들 뿐 아니라 "일제치하 정신대"에 끌려가거나, 전쟁 때 "빨갱이 누명쓰고 죽은" 여성들, 자유당 부정으로부터 광주민중항쟁에 이르는 해방 이후 현대사의 모든 순간마다 "옥바라지 홧병에 죽은" 모든 여성들이 "우리 어머니"로서 역사의 근간을 이룬다. "어머니는 역사 속에서 억눌린 모든 원혼들의 가장 구체적이면서도 보편적인 한 표상인 동시에 우리의 역사가 발원하고, 회개와 치유를 거쳐 마침내 되돌아가야 할 화해의 넓은 품, 즉 역사성의 궁극적 모태인 것이며, 여성해방이란 그러한 잘못된 역사와 제도의 바람직한 발전적 움직임의 한 모델로서의 넓은 의미를 지니는 것이다."16) 민족의 표상이자 모태로서의 여성에 대한 시인의 신념은 오랜 수난의 역사를 통해 극심한 위기와 희생의 순간을 겪으면서도 굳건하게 살아온 여성들에 대한 역사적 탐구에 기인한다.

고정희는 식민지의 희생물이자 극복의 주체로서 각별한 역사를 지니는 한국 여성의 이야기를 시로 알리는 데 앞장선 시인이다. 한국 여성의 남다른 역사성을 표현하기 위해 시인은 전통적인 시가의 형식을 적극적으로 도입한다. 굿이나 판소리, 창가와 같은 시가 형식을 활용하여 시 이전에 노래로서 친숙하게 수용되는 방법을 택한 것이다.

---

15) 고정희, 「남자현의 무명지-여성사 연구 3」, 『지리산의 봄』, 위의 책, 81쪽.
16) 박혜경, 「여성해방에서 통일로 이르는 굿판」, 『저 무덤 위에 푸른 잔디』 발문, 앞의 책, 149쪽.

넋이야 넋이로다
이 넋이 뉘신고 하니
일제치하 정신대 우리 어머니 아니신가
어메 어메 우리 어메 어찌하여 딸을 났소
낯짝 들고 조국강산 다시 밟지 못하리
혀 깨물고 죽은 우리 어머니[17]

이 시가 들어있는 시집은 전체가 굿의 형식으로 이루어질 정도로 실험적이다. 우리 역사에서 여성들이 겪은 고난을 되새기고 넘어서기 위해 굿의 진혼과 해원의 방식을 활용한 것이다. 인용한 부분은 일제 식민지하에서 정신대로 끌려가 희생된 여성의 넋을 기리고 있다. 이 시는 식민지의 딸로서 치욕적인 삶을 강요당하고 차마 조국의 품으로도 돌아올 수 없었던 억울한 넋의 소리 그 자체이다.

고정희의 시는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풍부하고 역사의식이 투철하며 전통시가의 형식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독자적인 경지를 이루고 있다. 때로 시라기보다 노래 또는 구호에 가까울 정도로 직설적이고 감정적인 표현도 많이 나타난다.[18] "치맛자락 휘날리며 휘날리며/우리 서로 봇물을 트자/옷고름과 옷고름을 이어주며/우리 봇물을 트자/할머니의 노동을 어루만지고/어머니의 보습을 씻어주던/차랑차랑한 봇물을 이제 트자"[19]와 같이 반복적인 리듬에 선명한 의미를 담아낸 시들이 많다. 식민지 조국에서 이어진 여성의 수난사를 오랫동안 탐구해온 시인으로서 그만큼

17) 고정희, 「지리산에 누운 어머니 구월산에 잠든 어머니」, 『저 무덤 위에 푸른 잔디』, 위의 책, 29쪽.
18) 김승희는 고정희 시의 발화가 갖는 이중성에 대해 "목적시의 공간에서는 시적 화자의 일방적 주장의 단성적 목소리가 상승되며 대화성이 약화되고 일방향적, 미래지향적 전진의 의지를 보여준다. 그러나 텍스트적 재미와 해방감을 생성하던 카니발적 세계는 감소되고 웃음의 해방감 보다는 의지의 비장함이 고취된다"고 상세하게 분석하고 있다. 김승희, 「고정희 시의 카니발적 상상력과 다성적 발화의 양식」, 『Comparative Korean Studies』 19권 3호, 국제비교한국학회, 2011, 32쪽.
19) 고정희, 「우리 봇물을 트자-여성 해방의 문학에 붙여」, 『지리산의 봄』, 앞의 책, 93쪽.

세상을 향해 던지고 싶은 말이 많았던 것이다. 고정희는 확고한 역사의식과 전통시가를 아우르는 다양한 형식 실험을 통해 우리 여성시의 탈식민주의 페미니즘을 선도해나간 시인으로 의미가 크다.

3. 김승희 - 제국주의적 일상의 각성과 여성의식의 교차 서술

김승희는 1973년 등단해서 1979년 첫 시집 『태양미사』를 간행하고, 『왼손을 위한 협주곡』(1983), 『미완성을 위한 연가』(1987), 『달걀 속의 생』(1989), 『어떻게 밖으로 나갈까』(1991)를 통해 여성의 삶에 대한 날카로운 통찰을 심화해나간다. 김승희의 시에서 탈식민주의 페미니즘이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양상은 그 이후의 시집인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싸움』(1995), 『빗자루를 타고 달리는 웃음』(2000), 『희망이 외롭다』(2012) 등에서 살필 수 있다. 김승희는 1995년 8월에 도미(渡美)하여 1997년 12월까지 미국 캘리포니아대 버클리 캠퍼스에 체류하면서 객원부교수로 한국 현대시와 한국의 명문(名文) 등을 가르치게 되는데,[20] 이 시기를 전후하여 탈식민주의 페미니즘에 대한 관심이 강화된 것으로 보인다. 미국 체류 기간에 다양한 국적의 여성들과 교류하거나 여성들이 겪는 질곡의 여러 장면을 목격하게 되면서 여성 차별과 깊숙하게 관련되어 있는 국가적, 인종적 차별을 더욱 뚜렷하게 인지할 수 있게 된다.

고정희가 식민지 여성의 역사적 의미를 재현하는 데 주력했다면 김승희는 동시대의 식민지적 상황과 성적 차별을 포착하는 데 예리하다. 고정희의 시에서는 이야기의 중심을 이루는 여성 주체에 대한 서술이 주가 되는 것에 비해 김승희의 시는 서술 주체인 시인 자신의 의식의 흐름에 따라 전개되는 경우가 많다. 즉 김승희의 시에서는 여성 수난사가 중심을 이룬다기보다 그에 대한 시인의 비평적 자의식이 중심을 이룬다. 김승희

20) 이혜원, 『자유를 향한 자유의 시학-김승희론』, 소명출판, 2012, 169쪽.

는 자신이 겪는 평범한 일상 속에 편재해 있는 제국주의와 여성 차별의 그늘을 감지하고 드러내는 데 면밀하고 분석적인 시선을 보여준다.

> 당연의 제국이 있다.
> 당연의 제국은 생각보다 넓고 단단하다
> —이런 세계에서 시는 무엇일까,
> 고통의 스트립쇼 같은 게 시는 아닐까
>
> (…)
>
> 내 속의 검둥이가 말한다,
>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혼혈이다,
> 검둥이가 있고 그것을 누르는 흰둥이가
> 또 있다)
> 금고 같은 삶을 원했느냐고
> 롯데 월드 같은 집을 원했느냐고
> 고속도로를 신나게 질주하는
> 관광버스 같은 삶을 살고 싶었느냐고[21]

시인의 예리한 자의식은 이 시대의 일상에서 자본주의적 가치가 하나의 제국처럼 지배적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는다. "돈이 돈을 끌어당기듯/힘이 힘을 끌어당기고/행복이 행복을 끌어당겨/당연의 제국에 해는 지지 않는다"라고 할 정도로 이 시대는 자본주의라는 "당연의 제국"에 압도적으로 종속되어 있다. 자본주의가 지배하는 "당연의 제국"은 이전의 식민지 시대와 달리 직접적인 억압을 가하지 않지만 아무도 자유로울 수 없는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 누구든 그것이 제시하는 돈과 힘과 행

21) 김승희, 「솟구쳐 오르기 · 3」,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싸움』, 세계사, 1995, 16-17쪽.

복에 종속되기를 원할 정도로 그 지배력은 교묘하다. 모두의 일상을 지배하면서도 그에 대한 비판적 의식을 마비시키는 그것은 자본주의가 이룩한 "당연의 제국"이다. 시인은 모두가 당연시하는 자본주의적 삶의 방식에 대해 의심하고 질문하는 것이 '시'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시는 밝고 투명하게 빛나는 자본주의의 쇼윈도 너머에 감추어진 억압된 울음과 분노를 드러내는 "고통의 스트립쇼" 같은 것이라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시인 자신을 "검둥이"와 "흰둥이"의 혼혈로 느낀다. 시대의 어둠을 온몸으로 증명하면서도 그것을 억압하는 자본주의적 질서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자신의 시대뿐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의심을 늦추지 않는 시인의 예리한 자의식은 이 시에서 괄호 속의 진술에 나타난다. 괄호 속의 고백적 진술은 내면의 진실과 외부의 억압 사이에서 느끼는 정체성의 혼란을 생생하게 드러낸다. 자본주의적 일상 속에서 개인의 자아는 돈과 행복을 향한 무한질주의 대열에서 벗어나 그 "바깥에 서 있는 것들"을 살펴보기 힘들다. 시인은 자본주의가 지배하는 "당연의 제국"에서 소외되고 억압받는 타자들과 고통을 함께 하는 것을 이 시대 시가 나가야 할 길이라고 본다.

시인은 삶의 근간에 침투해있는 제국주의적 압력을 간파해내는 데 남다르게 예리하다. 평등하지 못한 모든 인간관계에는 제국주의적인 억압이 작용한다. 남녀의 결혼에서도 그런 관계를 찾아낼 수 있다. "성채를 흔들며 신부가 가고/그 뒤에 칼을 든 군인이 따라가면서/제국주의가 시작되었다고 한다//부케를 흔들며 신부가 가고/그 뒤에 흰 장갑을 낀 신랑이 따라가면서/결혼 예식은 끝난다고 한다//모든 결혼에는 흰 장갑을 낀 제국주의가 있다"22)에서 시인은 결혼식 장면을 제국주의의 침투과정과 병렬적으로 편집하여, 거기 내재하는 지배와 피지배의 억압적 관계를 암시한다. 시인은 "흰 장갑을 낀 제국주의"의 교묘한 위장술을 날카롭게 포착해낸다. 서구 제국주의가 종교를 앞세우고 시작되었듯이, 일견 평화롭

22) 김승희, 「사랑5-결혼식의 사랑」, 『빗자루를 타고 달리는 웃음』, 민음사, 2000, 25쪽.

게 보이는 관계 속에도 제국주의적 억압의 위험은 충분히 내재한다. 사랑을 앞세운 결혼조차 성적 불평등으로 인해 억압적 관계가 되기 쉽다.

오늘날의 제국주의는 직접적인 지배보다 훨씬 교묘하게 위장되어 있다. 「사랑10-비디오 신부 나타샤」에서는 결혼이라는 제도에도 엄연하게 작동하는 제국주의적 관계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 시는 미국남자 헨리가 비디오테이프를 보며 모스크바의 결혼상담소에서 보내온 신부감들을 고르는 장면을 그리고 있다. 명문대를 나온 러시아의 금발 미녀들이 미화 오천 달러에 상품처럼 거래되는 안타까운 현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국력의 차이로 불평등한 결혼이 이루어지는 것은 국제결혼에서 당연지사에 가깝다. 주로 선진국의 남자와 후진국의 여자가 금전적 보상을 통해 연결되는 이런 결혼으로 평등한 관계를 이루어 나가기는 쉽지 않다. 시인은 결혼이라는 기본적인 인간관계에까지 깊숙하게 침투해있는 제국주의적인 차별과 억압의 실상을 꿰뚫어본다. 제국주의와 남녀 차별의 양상이 유사할 뿐 아니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선명하게 드러낸다.

김승희는 여전히 삶의 전면을 지배하고 있는 제국주의적 억압을 의식하고 그것이 특히 여성들에게 가혹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한다. 시인은 해외 체류 경험을 통해 우리나라 여성뿐 아니라 세계 각국의 여성들이 공유하는 억압과 폭력의 역사에 관심을 갖게 되고 여성들 간의 관련성을 인지하게 된다.

> 뉴욕 5번가 지하철역에서
>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을 때
> 내 옆에 서 있던 한 여자가 갑자기 웃기 시작했지,
> 그르렁그르렁 가래 끓는 소리 같기도 하고
> 쿨럭쿨럭 기침 토하는 소리 같기도 한 웃음소리는
> 지하동굴에 가득 찬 저녁의 무거운 숙명과
> 삶에 지친 울음이 반죽된, 희망 없는 우울의 둔주곡인지도,
> 어깨는 파도치고, 얼굴을 가린 손가락새로

악령의 뜨거운 희열이 넘쳐흐르고 있었는지도,

(…)

난 아르헨티나, 오월광장의 흰 머릿수건 두른 어머니들을
갑자기 기억했네,
80년, 5월, 광주, 무명인들의 묘와 실종자들,
이한열의 관을 뒤따랐던 무수한 만장,
화려한 만장이 산 자여, 따르라고
흐느끼는 것처럼 보였던,
다이아몬드 같은 아프리카의 검은 눈물,
내 아들을 쏘지 말아주세요 말하며
침략군의 탱크 앞을 맨몸으로 막아서던
체첸의 어머니들을,[23]

이 시는 뉴욕 지하철역에서 목도했던 한 여인의 죽음과 그로 인해 떠올린 처절한 여성사를 담고 있다. 뉴욕은 자본의 제국에서 수도에 해당하며 그곳의 지하철은 제국의 주민들을 실어 나르는 혈관과도 같다. 그곳에 식민지 여성과도 같은 이방인으로서 방문한 시인은 옆에 있던 여자가 갑작스럽게 웃다가 지하철로 뛰어드는 충격적인 장면을 마주하게 된다. 삶의 막다른 지점에 이르러 모든 희망이 제거된 상태에서 나오는 그녀의 웃음은 울음보다 처절하다. 지하 동굴을 울리는 웃음소리와 함께 순식간에 사라진 여자 때문에 망연자실한 시인에게 갑자기 세계 각국의 잔혹한 현대사와 그에 저항하는 어머니들이 떠오른다. 군사정권의 인권탄압에 맞서 진상 규명을 요구한 아르헨티나의 어머니들, 1980년 5월 우리나라 광주의 희생자들, 여전히 식민 통치에 신음하는 아프리카인들, 러시아의

23) 김승희, 「솟구쳐 오르기 8」,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싸움』, 앞의 책, 28-29쪽.

침략군을 맨몸으로 막아서던 체첸의 여성들은 모두 여전히 계속되는 폭력적인 정권과 그에 맞서는 약자들의 힘겨운 저항을 대변한다. 절대적인 폭력에 대한 약자의 항거는 힘의 불균형 때문에 더욱 비장하다. 이와 같은 터무니없는, 그러나 엄연히 현존하는 비극적 현실을 떠올리며 시인은 방금 전 지하철에 몸을 던진 여성처럼 느닷없는 웃음을 터뜨린다. "인류의 밤에 대한 캄캄한 나의 답장, 헌사"로 웃음밖에 내놓을 수 없기 때문이다. 뉴욕 지하철에서 몸을 던진 여성이 어느 나라의, 어떤 사연을 지닌 여성인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죽음 직전에 그토록 처절한 웃음을 남길 수밖에 없었던 그녀에게 시인은 강하게 공명한다. 또한 모든 "상실, 박탈, 실종의 사연"을 공유하는 자들의 절망이 그녀의 웃음과 함께 "인류의 밤"을 증명한다는 것을 깨닫는다. 김승희의 시에는 이 시에서처럼 서로 다른 시간과 공간의 여러 여성들을 순식간에 연결시키는 교차 서술의 방식이 자주 활용된다. 상이한 시대와 지역의 여성들이지만 부당한 억압을 겪는다는 사실로 인해 한자리에 묶이는 것이 전혀 어색하지 않다.

시인은 폭력적 현실에 처한 약자들이 느끼는 공감과 연대의식에 관심을 갖는다. 여성에게 주어지는 차별적 현실에 대한 자각은 같은 처지에 있는 다른 여성들의 삶에 대한 이해와 공감의 폭을 넓힌다. 여성들의 자매애가 혈연과 국가 간 차이를 넘어 가능한 이유는 남성 중심의 세계에서 차별받아온 약자라는 사실을 공통의 기반으로 한다. 김승희 시에서는 특히 오랜 세월 강국의, 또 남성의 지배에 억압되어온 식민지 여성들 간의 연대의식이 분명하게 나타난다. "인디언 처녀가 뉴멕시코 어디쯤에 있는/원주민 보호 구역에서/들판을 보며 홀로 북을 치고 있다//그 북은 내 머릿가죽으로 만든 것이다/그 북소리는 나보고 들으라고 치는 것이다/그 북소리는 나더러 나오라고 치는 것이다"[24]에서처럼 제국의 강력한 지배와 통제를 받는 식민지 여성들의 비극적인 역사에 민감하다. 미국의 인디언 처녀와는 미국이라는 강력한 제국의 통치 하에 상처받은 삶을 공유한

24) 김승희, 「<다친 무릎>에서 시작된 인생」, 『빗자루를 타고 달리는 웃음』, 앞의 책, 60쪽.

다. 미국의 원주민 소탕작전에 의해 학살당한 인디언 처녀나 “기지촌 셋방에서 마이클 이병에게 맞아 죽은 윤금이”25)는 모두 제국주의적 폭력에 무참히 희생된 식민지 여성들의 비극을 대변한다. 시인은 그들의 억울한 원혼이 울리는 소리에 무심하지 못하고, 자신을 포함한 식민지의 여성들에게 드리운 불안하고 위태로운 삶을 감지한다.

김승희는 차별적 세상에서 억울한 죽음을 맞이했던 여성들의 원혼과 소통하며 여성들이 공유하는 비극적 삶의 의미를 되살리고 연결하는 데 열중한다. 「너, 정저(井底), 덕혜옹주」에서는 여성에 대한 차별과 몰이해의 장벽에 부딪혀 비극적으로 산화한 여성들을 인상 깊게 그려낸다. 이 시에는 버지니아 울프, 그리고 그녀의 소설 『델러웨이 부인』을 읽는 로라, ‘델러웨이 부인’이라 불리우는 출판인 클라리사, 그리고 조선의 마지막 황녀 덕혜옹주가 등장한다. 모두 여성으로서 자신을 둘러싼 허위의 삶을 감내하며 고통에 휩싸이는 불행한 삶의 주인공들이다. 덕혜옹주를 제외하면 영국이나 미국의 여성들이어서 서로 다른 국가적 배경을 안고 있지만, 이들이 겪게 되는 위태롭고 고통스러운 삶 앞에서는 제국과 식민지의 경계마저 흐려진다. 백 년 동안이나 깊은 우물에 갇힌 듯 답답했을 이들의 삶을 “정저의 캄캄함 속에/양동이에서부터 가슴께까지/붉게 일어서는 한 다발의 핏빛 불꽃으로 당겨”26)올리는 것은 바로 시인 자신이다. 이 시에서 펼쳐지는 “네 명의 여자, 네 개의 공간, 네 개의 시간들”은 서로가 연기의 사슬처럼 연결되어 있으며 무엇보다 시인 자신의 적극적 공감과 연대의식에 의해 여성의 삶에 대한 유의미한 표상으로 완성된다. “시인은 약자이며 고통 속에 놓여있는 여성들이 서로 소통하고 교감하며 형성하는 공감과 연대가 그녀들의 삶을 훨씬 견딜만한 것으로 한다는 인식에 도달한다. 그러한 공감의 영역은 한없이 넓어서 전세계의 상처받은 여성들과 모든 역사상의 자매들을 아우른다.”27) 서로 다른 시간과 공간을 현

25) 김승희, 「문 밖에 계시는 어머니」, 위의 책, 58쪽.
26) 김승희, 「너, 정저(井底), 덕혜옹주」, 『희망이 외롭다』, 문학동네, 2012, 128-129쪽.
27) 이혜원, 앞의 책, 145쪽.

란한 교차 서술로 연결하여 여성적인 연대의 의미를 강조하는 시인 특유의 서술방식은 자매애라는 여성적 가치를 효과적으로 표현한다.

여성의 삶은 이전에 비해 차별과 억압으로부터 한결 자유로워졌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여전히 불평등하고 불안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김승희는 여성으로서 일상에서 느끼는 제국주의적 압박과 성적 차별의 실상을 누구보다도 민감하게 의식하고 그것을 비판적으로 재현한다. 무심코 지나치기 쉬운 일상의 순간들과 역사적 사실, 개인적 삶과 집단의 기억들을 병치시키는 절묘한 편집술로 의미를 증폭시킨다. 시인은 특유의 역동적인 교차 서술방식을 통해 국가와 시대적 차이를 넘어서 약자인 여성들 간의 자매애와 연대감의 확장을 시도한다.

4. 허수경 - 폭력의 역사와 여성 차별의 서사적 재현

허수경은 1987년 등단하여 1988년 첫 시집 『슬픔만한 거름이 어디 있으랴』를 간행한다. 이 시집에 실려 있는 「원폭수첩」 연작에서 탈식민주의 페미니즘을 살필 수 있다. 허수경은 1992년 두 번째 시집 『혼자 가는 먼 집』을 출간한 직후 독일로 유학을 떠난다. 뮌스터대학에서 고대 동방문헌학으로 박사학위를 받기까지 창작이 뜸하다가 그 후 활동을 재개하여 지속하고 있다. 『내 영혼은 오래 되었으나』(2001), 『청동의 시간, 감자의 시간』(2005), 『빌어먹을, 차가운 심장』(2011) 등 독일 이주 이후 간행된 시집들에서는 탈식민주의 페미니즘과 관련하여 살펴볼 만한 시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난다. 「원폭수첩」 연작에서 일본 제국주의와 관련된 우리나라 여성들의 수난을 그린 것에 비해 독일 이주 이후의 시들에서는 동서고금의 여성들이 보편적으로 겪어온 폭력의 역사를 재현한다.

고정희 시의 화자가 식민지 여성의 수난사를 환기하는 영매 혹은 투사에 가깝다면 김승희 시의 화자는 이러한 현실을 공유하는 여성들과 연대감을 느끼는 시인 자신인 경우가 많다. 이 두 시인과 비교해볼 때 허수경

시의 화자는 등장인물에게 훨씬 밀착되어 있다. 허수경의 시는 주로 여성 수난의 구체적인 상황을 그리며 이때 화자는 여성 인물의 목소리를 대변하거나 그 인물의 처지에서 상황을 재현한다. 고정희의 시에서 여성 수난의 역사적 맥락을 찾아내고 김승희의 시에서 다른 나라 여성들과의 공감대를 확장하는 것에 비해 허수경의 시에서는 여성이 겪는 고난의 양상이 집중적으로 표현된다. 허수경의 시에서 여성이 겪는 폭력의 실상은 한 편의 이야기처럼 구성되어 몰입도가 높다.

시집 『슬픔만한 거름이 어디 있으랴』에 실린 「원폭수첩」 연작에는 탈식민주의 페미니즘과 관련되는 허수경 시의 특징이 잘 드러난다. 이 연작은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폭 피해자들의 사연을 담고 있다. 피폭이라는 극한의 위기 상황에서 식민지인들, 그중에서도 여자들은 심각한 차별의 대상이 된다.

> 살려주세요 난 아직 안 죽었어요
> 죽을 것 같은 고통으로 몇 번을 까무라치고 배를
> 움켜잡고 마루로 기어나오면
> 칠흑 같은 어둠 저 너머
> 그 소녀가 실려가고 있었습니다
>
> 치료 한 번 못 받고 버림당한 김씨의
> 느티나무 건너 천수답 나락처럼
> 꺼멓게 말라가며 외치고 있었습니다
>
> 살려주세요 난 아직 안 죽었어요
> 조국처럼[28]

28) 허수경, 「원폭수첩 3」, 『슬픔만한 거름이 어디 있으랴』, 실천문학사, 1988, 51-52쪽.

이 연작시에 등장하는 조선인 피폭자들은 학도보국대 미쓰비시 군수공장 잡역부로 일하던 사람들이다. 이 시에서 그려지는 가장 처참한 피해자는 "살려주세요 난 아직 안 죽었어요"라고 외치는데도 시체와 함께 트럭에 실려 갔던 소녀다. "바다에 버리고 불로 태우고 구덩이에 묻던/원폭의 도륙보다 더 짐승 같은/도륙 속에"29) 이 소녀는 스러져간다. 인용시는 그토록 애원하던 소녀를 외면했던 김씨가 해방된 조국으로 돌아온 후 피폭의 후유증으로 고통스러워하는 장면을 그린 것이다. 살려달라던 소녀의 몸부림은 어느새 김씨의 것이 되어있다. 소녀를 외면했던 김씨는 조국으로부터 버림받고 치료 한 번 못 받은 채 고통으로 몸부림친다. "살려주세요 난 아직 안 죽었어요/조국처럼"이라는 반어적 표현에서는 이들 원폭 피해자들처럼 위태로운 조국의 상태를 암시한다. 제국의 수탈정책에 동원되어 억울한 죽음을 당한 이들은 식민지인의 비극을 대변한다. 소녀의 안타까운 사연은 식민지 상황에서 가장 약자에 해당하는 여성들의 처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식민지 여성들은 타국까지 끌려가 수탈을 당하면서도 가장 처참하게 버림받았던 존재이다. 피폭이라는 극한의 상황으로 식민지 여성에게 가해지는 이중의 억압은 더욱 극적으로 드러난다. 소녀는 일본 제국주의의 본토에서 식민지인으로서 가혹하게 취급되었을 뿐 아니라 동족의 남성에게도 외면당하는 이중의 차별에 직면한다.

허수경의 시는 이처럼 극한의 상황을 사실적으로 재현하며 그 안에서 여성들이 겪는 고통을 실감나게 그려낸다. 상황과 인물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가 강한 공감을 일으킨다. 허수경의 시에서 여성들의 고난은 특히 그들이 겪는 극심한 신체의 훼손이나 고통으로 표현되어 더욱 호소력을 갖는다. 위 시에서도 피폭되어 몸부림치다 산 채로 버려지는 소녀의 육체는 비참하기 그지없다.

남성들이 주도하는 전쟁이나 침략은 남성들만의 싸움으로 그치지 않는다. 오히려 여성들은 더 큰 피해자가 된다. 허수경의 시는 전쟁과 같은 극

29) 허수경, 「원폭수첩 2」, 위의 책, 49-50쪽.

한의 상황이 여성들에게 가져오는 극심한 피해를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그녀의 시에 나오는 여성들의 훼손된 신체는 폭력의 주체가 아닌 피해자로서 여성들이 겪어온 참상을 적시한다. “회빛 병원 침대마다 검은 학살의 꿈 팔 없는 간호사가 침대 옆에서 울고”[30]에서 알 수 있듯이 전쟁의 총탄은 군인과 일반인을 가리지 않는다. “검은 학살이 꿈”이 난무하는 전쟁터에서 간호사로 일하던 여자는 어지러운 총탄 속에서 팔을 잃고 불구의 몸이 된다.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는 잔인한 폭력은 누구에게나 죽음을 마주할 때 느끼는 극한의 공포를 유발한다. 「우물에」에서는 폭탄이 떨어지기 직전의 바그다드에서 유별나게 많은 결혼식이 치러졌던 사실을 전한다. “무엇이 그들을 결혼식으로 몰았던가, 거대한 죽음의 물결 앞에 선 자연재해자들처럼”[31]이라는 진술로 드러나듯 이런 결혼식은 죽음에 앞선 마지막 의식에 가깝다. “우물에 뜬 달 속에서 다친 여자들이 걸어나왔다 오,/오 오 그날의 달이 우물 속으로 간 까닭을 아무도 알 수는 없지만”이라는 구절을 통해 그 후에 벌어진 잔인한 학살의 과정을 짐작할 수 있다. 우물에 매장된 “다친 여자들”의 존재는 폭력이 야기한 참상을 증언한다.

허수경은 “시집을 두 권 내고 고향과 서울을 떠나 남의 나라에서 엎드려 책 읽고 남의 시간을 발굴하는 일에 종사하면서 십수 년의 시간을 보냈다.”[32] 근동고고학의 전공자로서 서아시아 지역에 장구한 세월 동안 축적된 유적을 탐사하며, 또 현재 그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숱한 전쟁과 내전을 목격하며, 시인은 오랜 폭력의 역사와 그와 함께 해온 여성 수난의 역사를 통시적, 공시적으로 확인하게 된다. 폭력의 역사는 뿌리가 깊고 현재까지 엄연하게 지속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여성들이 겪어온 상처는 참혹하기 그지없다. 허수경의 시에서 충격적으로 표현되는 여성들의 훼손된 신체는 약자인 그들에게 가해진 부당한 폭력의 실상을 선명하게 증언한다.

---

30) 허수경, 「회빛 병원」, 『청동의 시간, 감자의 시간』, 문학과지성사, 2005, 51쪽.
31) 허수경, 「우물에」, 위의 책, 52쪽.
32) 허수경, 『빌어먹을, 차가운 심장』, 문학동네, 2011, 155쪽.

고정희의 시에서 피해자인 여성들이 새로운 역사의 주체로 거듭나려는 의지를 표명하거나 김승희의 시에서 피해자로서 여성들이 서로 공감하며 연대를 형성하는 것에 비해 허수경의 시에서 여성들이 처한 상황은 훨씬 부정적으로 그려진다. 극복이나 연대의 의지를 드러내기도 힘들 정도로 허수경 시에 등장하는 여성들은 폭력적인 현실에 압도된 참담한 처지에 놓여 있다. 허수경의 시에서 남성과 여성,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는 우화에 가까울 정도로 선명하게 그려진다.

> 얼굴을 가리고 여자들은 언덕으로 도망쳤네
> 말을 탄 남자들이 여자들을 몰고 마을로 내려오네
> 울던 여자들이 어디론가 실려가네
> 가서 어느 낯선 곳에서 낯 모르는 많은 남자들과 잠을 자네
> 낯 모르는 남자와 잠을 자다가 우는 여자들이
> 우리 마을을 떠나 먼먼 곳에서 사네
> 노래를 부르네, 여자들이 웃으며 손으로 목을 조이며
> 그 소리는 슬픔이 날아가는 소리
> 날아라, 날아라 깃든 슬픔아[33]

이 시는 남자들의 강압에 의해 여자들의 삶이 유린되는 폭력적인 역사의 전형적인 과정을 재현하고 있다. 급박한 위기 상황에서 여자들은 국가나 마을 공동체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적군의 폭력에 무방비로 노출된다. 약소국의 여자들은 삶의 터전을 잃고 낯모르는 남자들에게 끌려가 뜻하지 않은 삶을 맞이한다. 이런 "여자들이 웃으며 손으로 목을 조이며" 부르는 노래는 울음보다도 짙은 슬픔을 담고 있다. 특정 지역이나 특정 시대를 제시하지 않은 이 시는 기실 어느 나라, 어느 시대에도 있었을 법한 여성들의 수난사를 두루 포함할 만큼 보편적인 이야기를 내포한다. 힘없

33) 허수경, 「검은 노래」, 『내 영혼은 오래 되었으나』, 창작과비평사, 2001, 45쪽.

는 나라의 여성들은 이처럼 적국의 남성들에게 끌려가 삶을 송두리째 유린당하고 어느 곳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가 된다. 다음에 이어지는 "순진하게 웃다가/노인들에게 책망을 듣고 듣다가 웃다가/흠씬 야단을 맞고도 또 웃다가 두들겨맞다가/또 웃어서 옷을 벗기고/나무에 매달려 얻어맞다가/또 웃다가 죽네"와 같은 장면은 이런 여성들이 고향으로 돌아온 후 처하게 되는 일반적인 상황에 해당한다. 병자호란 직후 청나라에 끌려갔던 조선의 여자들이 '환향녀'로 돌아와 고향에서 겪게 되는 박해나 일제 말 종군위안부로 끌려갔던 여자들이 고국으로 돌아와 겪게 되는 사연들도 이와 다르지 않다. "여성 수난을 구성하는 것은 제국의 가해적 권력만이 아니라 자국 민족주의 안에 들어있는 남성중심주의 담론들"[34]이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쟁이나 식민지 상황에 놓였던 나라의 여자들은 대개 이 같은 비극을 공유한다. 여성의 몸은 "민족 문제, 계급 문제, 모성의 문제가 뒤엉켜 있는 최후의 식민지"[35]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 검은 군인들은 팔뚝 문신에서 자라는 장미꽃의 머리를 툭툭 치다가
> 침을 뱉듯 아래를 향하여 포신을 여네
> 얼굴 하나와 몸 둘은 성 아래 절벽으로 떨어지고
> 석유통에서는 폭죽이 터져 아이의 얼굴을 비추는데[36]

> 끓고 있는 붉은 국을 좀 보아요. 저 매운 세계를 좀 보아요, 저 흰 부엌을 지키는 눈 먼 사제의 딸을 좀 보아요, 흰 소인 사제의 딸을 좀 보아요, 저 찰랑거리는 사제의 딸을 납치해가는 거머리총판을 든 귀 먼 용을 좀 보아요, 세계가 화덕에서 검게 졸아드는 것도 모르고 먹먼지 속으로 기어이 들

34) 김승희, 「한국 현대 여성시에 나타난 제국주의의 남근(Phallus) 읽기」, 『여성문학연구』 제7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02, 84쪽.
35) 이은경, 「광기/자살/능욕의 모성공간」, 『한국의 식민지근대와 여성 공간』, 태혜숙 외 공저, 여이연, 2004, 127쪽.
36) 허수경, 「붉은 노래」, 『내 영혼은 오래 되었으나』, 앞의 책, 53쪽.

어가는 저 용들을 좀 보아요, 흰 부엌에서 끓고 있던 붉은 아픈 국을 좀 보아요37)

허수경의 시에서 전쟁과 같은 압도적인 폭력을 주도하는 남성들은 주로 "검은 군인"으로 불린다. 그들이 어느 나라의 군인인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참담한 폭력과 죽음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그들은 모두 '검은' 군인들이다. "검은 군인"은 거대한 폭력으로 하나가 되며 그 앞에서 개인의 생명은 한없이 미약하다. "검은 군인"은 집단이 개인에게, 남성이 여성에게 가할 수 있는 폭력을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이러한 폭력의 세계를 그릴 때 허수경의 시는 우화에 가까운 선명한 구도를 보여준다. 폭력적 관계에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대비는 흑백의 차이만큼 선명하다고 인식하기 때문이다. 인용시에서 알 수 있듯 검은 색은 폭력과 죽음, 붉은 색은 불길한 현실, 흰색은 신성과 희생을 의미한다. 흰색을 대변하는 사제의 딸이 "검은 군인"과 같은 "거머리총판을 든 귀 먼 용"에게 납치되어가는 세계는 "붉은 아픈 국"이 "검게 졸아드는" 파국에 가깝다. 끓고 있는 국으로 표현되는 세계나 처녀를 납치하는 난폭한 용은 우화에서 익숙한 상징들이다. 허수경은 우화의 선명한 상징을 활용하여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세계의 곳곳에서 벌어지는 폭력과 희생의 역사를 각인시킨다.

고고학의 유물에서 끊임없이 확인되는 폭력의 역사적 증거들, 여전히 끊이지 않는 교전과 학살의 현장을 접하며 시인은 "어떤 독재보다 더 지독한 속수무책"38)을 느낀다. 허수경의 시에서 고정희 시와 같은 극복의 의지나 김승희 시와 같은 연대의식보다 절망적인 상황인식이 더 많이 드러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시대와 지역의 차이를 넘어 전 세계에 편재한 폭력의 역사, 그로 인한 여성의 수난과 상처를 목격하면서 시인은 깊은 슬픔과 무력감에 빠져든다. 특히 폭력에 훼손된 여성의 신체는 식민화의

37) 허수경, 「흰 부엌에서 끓고 있던 붉은 국을 좀 보아요」, 『청동의 시간, 감자의 시간』, 문학과지성사, 2005, 50쪽.
38) 허수경, 「기차역」, 위의 책, 103쪽.

참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상징에 가깝다. 우화와 같은 선명한 구도로 펼쳐지는 폭력의 양상은 그것의 뿌리가 깊고 쉽게 나아지기 힘들다는 부정적 인식을 반영한다. 허수경의 시에는 폭력의 역사가 지속되는 한 여성 신체의 식민화 또한 멈추지 않는다는 동서고금의 증거들이 서사적으로 재현된다.

5. 결론

본고에서는 고정희, 김승희, 허수경의 시를 중심으로 한국 여성시에 나타나는 탈식민주의 페미니즘을 살펴보았다. 탈식민주의 페미니즘은 식민지 여성들이 겪어온 억압과 차별에 대한 인식을 밝히기에 적절한 이론이다. 식민지 체험이 있는 한국의 여성시를 통해 식민지배와 가부장제에 대한 타자로서의 여성이 갖는 예리한 현실인식을 살필 수 있었다. 본고에서는 그동안 고정희의 시에 집중되어 있던 이 분야의 연구 대상을 김승희와 허수경으로 확대하여 이들의 시가 보여주는 의식과 표현 방식을 비교함으로써 탈식민주의 페미니즘의 다양한 의미와 시적 가능성을 탐색해보았다.

고정희는 일제 강점기를 포함하여 강대국에 직간접적으로 지배당한 역사를 모두 식민 상태로 파악하고 그러한 역사 속에서 이중고를 겪어온 여성의 수난사를 집중적으로 탐구한다. 고정희 시에서 여성은 폭력적 역사의 희생자이면서도 그러한 역사를 극복하기 위해 주체로서 앞장서는 강인한 의지의 표상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한국 여성 특유의 역사성을 표현하기 위해 시인은 전통적인 시가 형식을 도입하여 민족적인 정신과 정서에 호소한다. 고정희는 여성 수난사에 대한 주체적 탐구와 전통시가의 형식 실험을 통해 한국 여성시의 탈식민주의 페미니즘을 적극적으로 이끌어간 선구자라 할 수 있다.

김승희는 평범한 일상에 편재해 있는 제국주의와 여성 차별의 그늘을

예리하게 포착하고 비판적으로 분석해낸다. 오늘날의 제국주의는 자본주의의 외양을 한 채 더욱 교묘하게 삶의 근간까지 침투해 있다는 사실을 각성시킨다. 또한 제국주의의 압력이 여성 차별과 관련되는 양상을 적시한다. 김승희는 한국뿐 아니라 세계 각국의 여성들이 이와 같은 억압과 폭력의 역사를 겪어왔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들에 대한 공감과 연대의식을 갖게 된다. 일상의 순간들과 역사적 사실, 개인의 삶과 집단의 기억을 결합하는 김승희 특유의 교차 서술은 국가와 시대의 차이를 넘어서는 여성들 간의 자매애와 연대감을 역동적으로 표현한다.

허수경은 폭력적인 역사 속에서 지속되어온 여성 차별의 구체적인 실상을 서사적으로 재현한다. 전쟁과 같은 극한의 상황에서 여성들이 겪는 극심한 피해, 특히 심각하게 훼손되고 식민화된 신체를 통해 폭력의 피해자로서 여성들이 겪어온 참담한 사연을 펼쳐 보인다. 남성과 여성,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명백하게 보여주는 우화적인 서술방식은 무수히 반복되어온 폭력과 희생의 역사를 각인시킨다. 허수경의 시는 폭력의 역사 속에서 배가되어온 여성 차별의 뿌리가 깊고 앞으로도 쉽게 나아지기 힘들다는 부정적인 전망을 우화의 선명한 구조로 재현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세 시인의 시에 나타나는 탈식민주의 페미니즘은 그 강조점이나 표현의 방식이 상이하여 다양한 시적 의미를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다양성은 한국 여성시의 새로운 가능성을 확장하는 데 긴요하게 작용한다. 이들이 내포하는 다양성 못지않게 공통점 또한 주목할 만하다. 이들은 한국 여성시에서 '여성주의적' 인식이 고취되었던 1980년대를 통과하며 현실인식을 강화했으며, 이후 상황이 다소 개선되어 다수의 여성시인들이 보다 자연스러운 '여성의' 문학을 추구하는 변화 속에서도 역사와 현실에 대한 높은 관심을 유지한다. 여성문제에 작용하는 역사적 상황을 심도 있게 탐구하는 과정에서 이들은 한국 여성시에서 드물게 탈식민주의 페미니즘이라 할 만한 포괄적 인식에 접근하게 되고 이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이를 탐구하면서 독자적인 시선과 미학을 형성하게 된다. 또한 이들은 외국 여성들과 교류하며 세계 여성들이 공유하는

폭력과 차별의 양상을 파악함으로써 탈식민주의 페미니즘을 확장적으로 사유한다. 여성으로서 겪는 고난과 상흔은 여성 특유의 자매애를 발생시킨다. 이들의 시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국가를 초월한 여성들 간의 깊은 공감과 연대의식은 여성문학이 보여줄 수 있는 드높은 가치에 해당한다. 개인의 삶에 작용하는 국가적, 성적 불평등이 존속하는 한 탈식민주의 페미니즘의 현실인식은 유효할 것이다. 이들의 시는 한국 여성시의 탈식민주의 페미니즘을 대표하며, 성적 차별의 역사를 입체적으로 파악하는 데 긴요한 준거가 된다.

참고문헌

1. 자료

고정희, 『눈물꽃』, 실천문학사, 1986.
_____, 『지리산의 봄』, 문학과지성사, 1987.
_____, 『저 무덤 위에 푸른 잔디』, 창작과비평사, 1989.
_____, 『모든 사라지는 것들은 뒤에 여백을 남긴다』, 창작과비평사, 1992.
김승희,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싸움』, 세계사, 1995.
_____, 『빗자루를 타고 달리는 웃음』, 민음사, 2000.
_____, 『희망이 외롭다』, 문학동네, 2012.
허수경, 『슬픔만한 거름이 어디 있으랴』, 실천문학사, 1988.
_____, 『내 영혼은 오래 되었으나』, 창작과비평사, 2001.
_____, 『청동의 시간, 감자의 시간』, 문학과지성사, 2005.
_____, 『빌어먹을, 차가운 심장』, 문학동네, 2011.

2. 단행본

김성곤, 「탈식민주의 시대의 문학」, 『외국문학』 31, 열음사, 1992, 12-31쪽.
박종성, 『탈식민주의에 대한 성찰』, 살림, 2006, 45쪽.

박혜경, 「여성해방에서 통일로 이르는 굿판」, 『저 무덤 위에 푸른 잔디』 발문, 창작과비평사, 1989, 149쪽.
태혜숙, 『탈식민주의 페미니즘』, 여이연, 2001, 46쪽.
이은경, 「광기/자살/능욕의 모성공간」, 『한국의 식민지근대와 여성 공간』, 태혜숙 외 공저, 여이연, 2004, 127쪽.
이혜원, 『자유를 향한 자유의 시학-김승희론』, 소명출판, 2012, 145, 169쪽.
가야트리 스피박, 『포스트식민 이성비판』, 태혜숙 역, 갈무리, 2005, 177-288쪽.
가야트리 차크라보르티 스피박 외, 『서발턴은 말할 수 있는가?』, 태혜숙 역, 그린비, 2013, 100쪽, 129-130쪽.
Elaine Showalter, "The Female Tradition", *A literature of Their Own,* Princeton, New Jersey: Princeton Univ. Press, 1977, pp.19~36.

3. 논문

김승희, 「한국 현대 여성시에 나타난 제국주의적 남근(Phallus) 읽기」, 『여성문학연구』 7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02, 80-104쪽.
김승희, 「고정희 시의 카니발적 상상력과 다성적 발화의 양식」, 『Comparative Korean Studies』 19권 3호, 국제비교한국학회, 9-37쪽.
박경화, 「탈식민주의와 페미니즘」, 『탈식민주의 이론과 쟁점』, 고부응 외 공저, 문학과지성사, 2003, 168-169쪽.
이나영, 「초/국적 페미니즘-탈식민주의 페미니스트 정치학의 확장」, 『경제와사회』 70호, 비판사회학회, 2006, 63-88쪽.
정영주, 「고정희 시의 탈식민주의 페미니즘에 관한 고찰-『모든 사라지는 것들은 뒤에 여백을 남긴다』를 중심으로」, 『한국문예창작』 9호, 한국문예창작학회, 2006, 39~67쪽.

Abstract

Study on Postcolonial Feminism in Korean Woman's Poetry
: Focusing on the poetry of Ko Jeonghee, Kim Seunghui, Heo Sukyung

Lee, Hye-won

In this paper, I consider the characteristics of consciousness and description related to the postcolonial feminism especially focusing on the poetry of Ko Jeonghee, Kim Seunghui, Heo Sukyung.

Ko Jeonghee explores the history of hardship of women who had suffered a double whammy in colonial history. She introduces a traditional poetic form to describe the special history of Korean women.

Kim Seunghui critically analyzes the shadow of imperialism and discrimination that is omnipresent in everyday life. She dynamically expresses the sense of sisterhood and solidarity between women and women by the unique description of cross-cutting.

Heo Sukyung describes the aspects of serious discrimination that women face. Her poems show a clear structure of fable which is associated with negative outlook about the history of women, because it has been imbued with the history of violence.

In conclusion, postcolonial feminisms which appear in their poems have different poetic products, forming various meanings and means of expression, also represent the level of awareness about woman's issues.

Key words : Korean Woman's Poetry, Postcolonial Feminism, Ko Jeonghee, Kim Seunghui, Heo Sukyung, Colony, Imperialism, Sisterhood,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 본 논문은 2017년 7월 13일에 접수되어 2017년 7월 20일부터 8월 10일까지 소정의 심사를 거쳐 2017년 8월 14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